

온돌난방시설을 통해 본 고구려-고려계승관계에 대한 분석

조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쪽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대동강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였으며 광활한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고려라는 이름도 고구려에서 유래한것이다.》
(《김정일전집》 제2권 161페이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피줄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단일민족이다.

고려는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계승하고 고구려의 삼국통일정책을 이어받아 국토의 통일을 이룩한 봉건국가였으며 북방 여러 나라(거란, 녀진, 원)들과 왜구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제어용사가들은 조선사람의 선조들이 신석기시대에 남방과 북방에서 흘러들어온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혼혈족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였으며 부여, 고구려는 통구스-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고 고려는 옛 3한(고대 남부지방의 마한, 변한, 진한)의 나라만을 계승한 나라인것처럼 묘사하면서 조선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형태를 바꾸어가며 외곡하여왔다.

현재 일부 주변나라들에서는 고려는 3한을 계승하였으므로 고구려와 무관계하다고 하고있으며 그 이유로 918년 왕건이 세운 고려가 진국의 3한땅우에 성립된 후기신라와 후백제를 차지하였을뿐 그 북쪽에 크게 세워졌던 고구려와 지역적으로 다르며 그와 무관계하다는것 즉 아무런 련관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일제어용학자들이 들고나온 《신라-3한은 조선민족의 조상이고 고구려, 부여는 통구스-만주족》이었다는 반동적학설을 되풀이하는것으로 될뿐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인 온돌난방시설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국가라는것을 보다 명백히 밝혀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의 온돌난방시설이 고대시기에 창안된 우리 민족고유의 온돌난방시설의 계승이라는데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살림집의 난방은 추위로부터 사람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시설은 나라와 민족의 생활풍습에 따라 서로 다른 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나라의 난방시설은 앞서서 생활하는 우리 민족의 살림집방안생활풍습에 맞게 고래(온돌방의 구들장밑으로 연기와 불길이 통하는 길)가 낮은 구들시설로 이루어진 살림집난방형식이다.

구들이란 말은 열에 의하여 달아오른 돌을 구운 돌이라고 부르던데로부터 점차 구들이란 말로 고착되었으며 따뜻한 돌이란 의미에서 온돌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고래구들로 된 난방시설은 고대에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 고대집자리유적인 평안북도 념변군 세죽리유적에서 드러난 난방시설은 고래가 낮은 외고래구들로서 난방시설이 발생초기부터 방에 앉아 생활하는 우리 민족풍습에 맞게 되어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고고민속》4호 사회과학출판사 1966년 16~18페이지)

이 온돌난방시설은 우리 선조들이 방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독을 리용하는 과정에 그 주위에 놓인 돌이 불에 가열되어 오래동안 열을 내는 원리를 리용하여 만든것이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온돌은 불이 꺼져도 방안의 난방을 더워진 돌(온돌)로 보장할수 있었으므로 점차 열의 합리적인 리용과 우리 민족의 방안생활풍습과 결부되어 고래가 낮은 구들시설의 면모를 갖추면서 발전하게 되였다.

고대에 발생한 온돌난방시설은 고구려시기에 와서 외고래의 긴구들, 7자형의 외고래구들, 두고래구들로 계승되고 발전하였다.

당시 옛 문헌에는 고구려의 온돌에 대하여 사람들이 겨울에 모두 긴고래구들을 만들고 그밑에 불을 지펴 더위를 얻어낸다고 기록하고있다.((구당서》권199 상 열전동이 고려(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령역안에서 드러난 많은 온돌유적들은 난방시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온돌난방시설로 계승되고 일반화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온돌유적을 보면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유적, 중강군 토성리유적,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유적, 함경남도 함주군 신하리유적, 길림성 집안시 동대자유적의 집자리를 비롯하여 평안북도 태천군 룡오리산성안의 건물터와 평양시 력포구역의 동명왕릉앞 정릉사의 건물터 등의 유적들이다.((조선민족살림집풍습》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6(2007)년 85페이지)

여기에서 로남리유적의 2호집자리를 보면 동서가 12m, 남북이 10m인 장방형의 살림집터안에 7자모양의 외고래구들시설 2개가 동서로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가운데서 동쪽에 있는 1호온돌은 강돌로 만든것이였는데 구들고래의 높이는 0.25m, 너비는 0.3m정도였다.

구들고래의 동서길이는 2.8m였고 그 동쪽끝에서 남쪽으로 직각이 되게 꺾이였는데 남쪽으로 꺾인 부분의 길이는 0.5m, 너비는 0.4m였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2호온돌은 동서길이가 2.6m, 남쪽으로 꺾인 부분의 길이가 2.3m였다.((압록강, 장자강류역고구려유적발굴보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48~50페이지)

토성리유적의 4구 집자리에서도 7자모양의 외고래구들시설이 발견되였는데 그 길이는 6m였고 너비는 0.4m, 높이는 0.25~0.3m였다.((문화유산》5호 사회과학출판사 1961년 50페이지)

대평리유적에서는 아래층 2호집자리의 구들고래너비가 15~20cm, 높이는 10cm였고 가운데층 3호집자리 구들시설의 너비는 1.2m, 길이는 2.5m였다.

이 온돌시설의 동남쪽에 부엌아궁이 있었고 서남쪽에는 길이 1m정도의 굴뚝고래가 있었다.((고고학자료집》제4집 사회과학출판사 1974년 141~145페이지)

동대자유적의 동쪽과 서쪽 두 방에는 7자모양으로 된 온돌시설들이 각각 1개씩 있었는데 동쪽방의것은 외고래구들이였고 서쪽방의것은 두고래구들이였다.

그가운데서 두고래구들인 서쪽방의 온돌너비는 2m나 되였다.((고구려문화》사회과학출판사 1975년 69페이지)

함주군 신하리집자리의 구들고래를 보면 방바닥은 15cm정도의 깊이로 파고 바닥에 진흙다짐을 5cm정도의 두께로 한 다음 기와조각을 겹쌓아 고래벽을 만든 것이었다. 고래너비는 35cm정도였다.

고래웃면에는 구들돌(판돌)대신 암기와를 2~3겹정도 겹놓아 그것을 대신하였다.((《조선고고연구》 1호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 30~36페이지)

온돌고래의 높이는 신하리집자리에서 15cm정도로 가장 낮고 대평리와 동대자집자리 등에서는 20~25cm로 되어있다.

이러한 유적들의 남아있는 상태와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여보면 고구려살림집에서는 구들고래를 낮게 하면서도 구들고래의 벽체가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아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들고래가 외고래로부터 두고래로 변화되고 그 넓이가 확장되어 전면구들로 변화발전되는 추이도 나타내고 있었다.

실례로 로남리집자리와 토성리유적 4구의 집자리들, 신하리집자리, 정릉사터안의 집자리에서 드러난 구들고래는 모두 외고래였지만 토성리유적 5구와 대평리, 동대자집자리의 구들고래는 두고래로 되어 있었다.

특히 동대자집자리의 구들고래는 너비가 무려 2m로 되어 있었다. 당시 외고래온돌의 고래너비가 대체로 0.3~0.7m로 되어있었던 것만큼 두고래온돌이 방바닥의 더 넓은 면적을 덮히었을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결국 구들시설이 방안전면을 덮힐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동대자유적을 비롯한 고구려의 집자리유적에서 보이는 이 긴구들고래는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보이는 《장갱(긴고래구들)》을 연상시키며 온돌난방시설은 근로인민들의 추위를 막기 위한 생활적인 요구로부터 살림집의 난방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구려의 온돌난방시설은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도 보이고 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의 온돌난방풍습은 약수리무덤벽화의 부엌그림과 고국원왕릉벽화의 부엌칸을 그린 그림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약수리무덤벽화의 부엌칸을 그린 그림에는 3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다.

그가운데서 한 여인은 가마우에 시루를 올려놓고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다른 한 여인은 부뚜막아궁에 불을 때고 있다. 그리고 아궁에 불을 땔 때 생기는 연기는 굴뚝으로 빠지게 되어 있으며 부엌아궁과 굴뚝사이의 중간에 세번째 여인은 서 있다.

고국원왕릉동쪽결칸의 부엌칸그림에도 3명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한 여인은 솥우에 올려놓은 시루에서 음식을 찌내고 있고 다른 한 여인은 소반우에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여인은 부엌아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이 부엌그림들은 고구려에서 여성들에 의한 부엌리용풍습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온돌난방시설의 하나인 부뚜막과 부뚜막아궁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고구려의 난방시설이 구들고래를 통한 고대의 바닥난방시설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며 부뚜막아궁과 구들고래,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이러한 난방시설은 고구려와 이웃한 다른 민족들의 난방시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당시 고구려와 이웃한 중국한족의 난방시설은 좁고 긴 고래구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아궁이를 통한 짧은 통고래구들(강)이었다.

강은 아궁목과 고래가 꺾이지 않고 곧추 연결되어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으며 고래가 높아서 방안에서 걸터앉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난방시설이었다. 그리고 꺾임을 형성하지 않고 잠자리만 덥힐 수 있게 규모가 작았으며 방안생활은 신발을 신고다니는 방식이었으므로 전면난방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호북성 방현에서 알려진 후한의 소형벽돌무덤들인 란M1-4호무덤과 란M3-5호무덤에서는 도제부뚜막명기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모두 아궁과 고래, 굴뚝이 곧추 통해져 있는 작은 규모의 명기들이었다.

이 무덤들은 각각 희평5년(176년)과 양가원년(132년)《조선민족살림집풍습》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6(2007)년 92페이지의 무덤으로서 모두 고구려와 같은 시기에 해당된다.

이 무덤들에서 나온 부뚜막모형들은 고구려무덤들인 마선구1호무덤과 운산군 룡호동 2호무덤에서 나온 아궁목과 굴뚝이 직각으로 놓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일본의 고분시대 살림집들에서는 방가운데에 솥을 피우는 정방형의 이로리(화로)를 놓았으며 귀족들의 살림집에서는 마루방에 다다미를 깔고 가운데에 이로리를 놓아 난방을 보장하였다. 이로리는 방바닥에 뚫어앉아 생활하는 일본사람들의 풍습으로부터 생겨난 난방시설로서 고구려의 난방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난방형식은 빼치까라는 벽난로였다. 고대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에서 발견된 용암에 묻힌 A.D.1세기의 살림집난방시설이 바로 벽난로였다.《세계고고학대계》(일본) 4권 평범사 1963년 도판 32~34)

이 벽난로는 서서 생활하는 유럽사람들의 생활풍습에 맞는 난방시설로서 아궁으로 불을 때고 벽체를 통하여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온돌난방풍습은 열리용과정에 창안된 우리 민족고유의 난방풍습이었으며 목축과 사냥을 기본생업으로 하던 통구스-만주족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었고 당시 동방이나 서방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할 만 한 것이 없는 독특하고 우수한 난방시설이었다.

다음으로 고려의 온돌난방시설이 고구려의 온돌난방시설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는 데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려시기 온돌은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 깨끗한 생활조건을 마련하려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앞선 시기의 부분적인 바닥난방시설이 아니라 방바닥 전면을 덥힐 수 있게 되어 있는 전면온돌난방시설이었다.

고려시기의 온돌시설에 대하여 옛 문헌에는 고려사람들이 화향(구들)을 만들고 거기에 눕는다고 기록하고 있다.《선화봉사고려도경》권28 공장 와답)

《선화봉사고려도경》이 송나라사람인 서공이 개경에 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때 당시 구들난방시설이 우리 나라 중부지방에서도 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고려시기 병부랑중으로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안찰사로 있었던 주열이라

는 사람이 어떤 고을에 가서 숙박하였을 때 밤중에 그 집 온돌틈으로 불이 나서 이부자리를 태웠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포괄하는 전반적지역에서 온돌난방을 살림집의 난방시설로 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고려사》 권 제106 렬전 제19 주열)

이렇게 온돌난방시설이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서 리용되었다고 볼 때 이것은 일부 부분적인 지역이나 사람들이 리용한 난방시설이 아니라 전면적적인 범위안에서 모두가 리용한 조선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며 그것이 다름아닌 고구려의 온돌난방시설을 계승발전시킨것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고려시기의 온돌유적들은 모두 고구려의 온돌유적과 일치한 모습을 나타내고있으며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고려시기 온돌유적으로서는 자강도 중강군 토성리(11세기초)와 평안북도 동창군 학성리(11세기초), 신의주시 상단리(11~12세기) 등 여러곳에 알려져있다.

온돌난방시설을 보면 구들고래가 4~7개로서 방바닥전면을 덮힐수 있게 설치되어있었다.

중강군 토성리집자리의 온돌시설은 정방형의 방남쪽에 2개의 아궁을 내고 동서랑쪽벽을 따라 2개의 구들고래를 냈는데 이 고래들은 북벽가운데서 합쳐져 하나의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동창군 학성리에서 드러난 온돌시설은 중강군 토성리의 온돌시설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있었다.

이 집자리에서는 방의 동서길이가 26m, 남북너비가 4m였는데 3m폭이 구들로 인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1m폭의 공간은 복도였다고 짐작된다. 아궁은 모두 4개를 냈는데 아궁목이 꺾이였고 고래들은 동서에 각각 하나씩 낸 굴뚝과 연결되어있었다. 굴뚝은 돌로 큼직하게 만들어져있었다.

이 유적에서 구들고래의 높이는 35cm정도로서 낮은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동창군 학성리난방시설은 아궁, 고래구들, 굴뚝 등 모든 요소들이 고구려의 동대자집자리 난방시설과 그 형식이 같으며 고래의 너비가 훨씬 넓어져서 방의 거의 모든 면적을 다 차지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신의주시 상단리유적의 온돌시설도 이 시기에 이르면서 그것이 전면온돌로 발전한 양상을 보여주고있다.

이 유적에서는 2개의 구들이 알려졌는데 첫째 구들은 한 아궁에 7개의 고래가 달려있었고 그 넓이는 12m²이상이였으며 둘째 구들은 역시 한 아궁에 4개의 고래가 붙어있었고 그 넓이는 16 m²쯤 되었다.((《고고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68년 1호 29~30페이지)

이 상단리집자리에서는 온돌이 전체 방바닥을 다 차지하고있었으며 하나의 아궁으로 구들을 덮히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고려중엽에 이르면서 온돌이 방바닥넓이를 다 차지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아궁으로 방바닥전체를 다 덮히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상단리집자리뿐만아니라 개성 만월대의 고려왕궁유적에서 알려진 살림집의 성격을 띤 유적에서도 같은 형식의 온돌난방시설이 드러났다.

이 전면온돌은 종래의 외고래나 두고래온돌에 비해 방안을 더 골고루 덮힐수 있을뿐 아니라 방안의 위생성을 보장하는데서도 합리적이며 발전된 온돌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고려의 온돌난방시설은 고구려의 온돌난방형식과 일치하고있으며 그것을 보다 계승발전시켜 두고래, 세고래를 거쳐오다가 점차 전면온돌로 발전한 시설이였고 우리 나라 북부지역에만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남부지역을 포함한 전민족적범위안에서 보급되고 계승발전된 난방시설이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고래가 낮은 긴고래구들난방을 살림집의 난방시설로 계승발전시키고 리용한 고구려, 고려사람들은 피줄과 언어, 생활풍습이 같은 하나의 민족이였으며 주변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단일민족이였다.

이것은 살림집의 온돌난방시설 하나만 보아도 고려는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발전시킨 한겨레, 한민족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실마리어 온돌난방시설, 고구려무덤벽화